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07-2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2022년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및 학력에 대한 인식

2022. 11. 23.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3명 중 2명,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고졸 이하(61%)보다는 대학 재학 이상 학력(71%)인 사람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64%)보다는 있는 사람(70%)에게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3명 중 2명,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위 : %)



2022년 결과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대체로)	그렇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1	44	28	5	65	33	2	100
성별									
남자	(494)	20	42	30	5	63	35	2	100
여자	(506)	22	46	27	5	68	31	1	100
연령									
18-29세	(168)	27	44	20	7	71	27	2	100
30대	(151)	17	40	34	6	57	41	3	100
40대	(184)	26	44	22	5	70	28	3	100
50대	(195)	20	43	32	4	62	36	2	100
60세 이상	(302)	18	47	31	4	65	35	0	100
학력									
고졸 이하	(568)	20	41	31	6	61	37	2	100
대재 이상	(432)	23	48	24	4	71	29	1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209)	24	46	26	4	70	30	1	100
없음	(791)	20	44	29	5	64	34	2	100

질문 :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 2022. 10.28 ~ 10.3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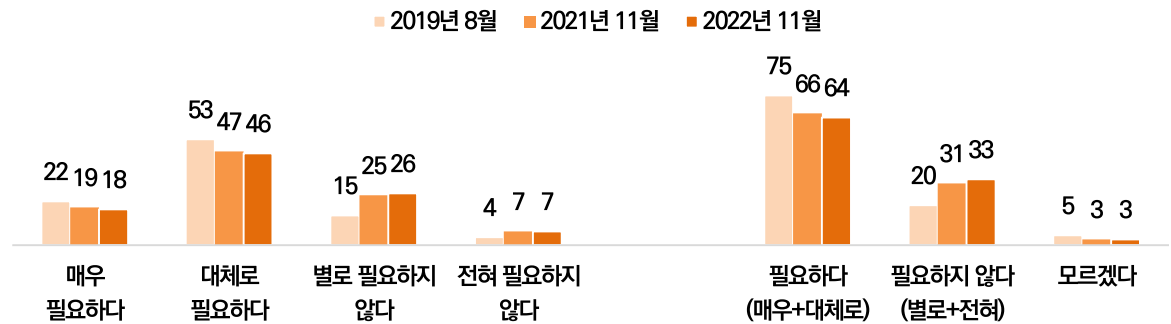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하다 64%, 3년 전 대비 11%포인트 감소

우리나라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로, 대학 진학과 마찬가지로 3명 중 2명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포인트, **3년 전**인 2019년 8월(75%)보다는 11%포인트가 감소한 결과이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9%)보다는 여성(70%)이, 고졸 이하(61%)보다는 대학 재학 이상 학력(69%)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62%)보다는 있는 사람(72%)에게서 높았다. 또한 40대 이하 응답자는 5-60대에 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하다 64%, 3년 전 대비 11%포인트 감소

(단위 : %)



2022년 결과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18	46	26	7	64	33	3	100
성별									
남자	(494)	16	43	30	8	59	38	4	100
여자	(506)	20	49	22	6	70	28	3	100
연령									
18-29세	(168)	28	45	15	7	74	22	5	100
30대	(151)	22	46	21	7	68	28	4	100
40대	(184)	27	43	24	5	71	28	1	100
50대	(195)	12	50	29	6	62	36	3	100
60세 이상	(302)	9	46	33	9	55	42	3	100
학력									
고졸 이하	(568)	15	46	29	7	61	36	3	100
대재 이상	(432)	22	47	22	7	69	29	3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209)	27	45	22	5	72	27	1	100
없음	(791)	16	47	27	8	62	34	4	100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 2022. 10.28 ~ 10.3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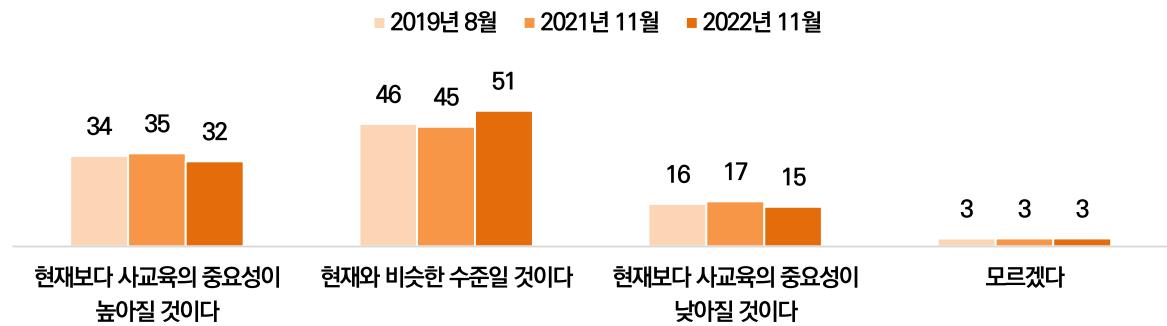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중요성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32%, 비슷할 것이다 51% 40대 이하는 사교육 중요성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높아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도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중요성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51%로 우세하였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15%)보다는 높았다. 사교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년 전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40대 이하는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높았다. 18-29세 응답자 중에서는 49%가, 30대에서는 38%가, 40대에서는 40%가 사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해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다.

대학 진학 위한 사교육 중요성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32%, 비슷할 것이다 51%
40대 이하는 사교육 중요성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높아

(단위 : %)



2022년 결과	사례수 (명)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현재보다 사교육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2	51	15	3	100
성별						
남자	(494)	30	52	16	3	100
여자	(506)	34	49	14	3	100
연령						
18-29세	(168)	49	43	7	2	100
30대	(151)	38	46	14	2	100
40대	(184)	40	45	11	5	100
50대	(195)	31	52	15	2	100
60세 이상	(302)	16	60	21	3	100
학력						
고졸 이하	(568)	30	52	14	4	100
대재 이상	(432)	35	48	15	1	100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209)	45	40	14	1	100
없음	(791)	29	53	15	3	100

질문 :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 2022. 10.28 ~ 10.3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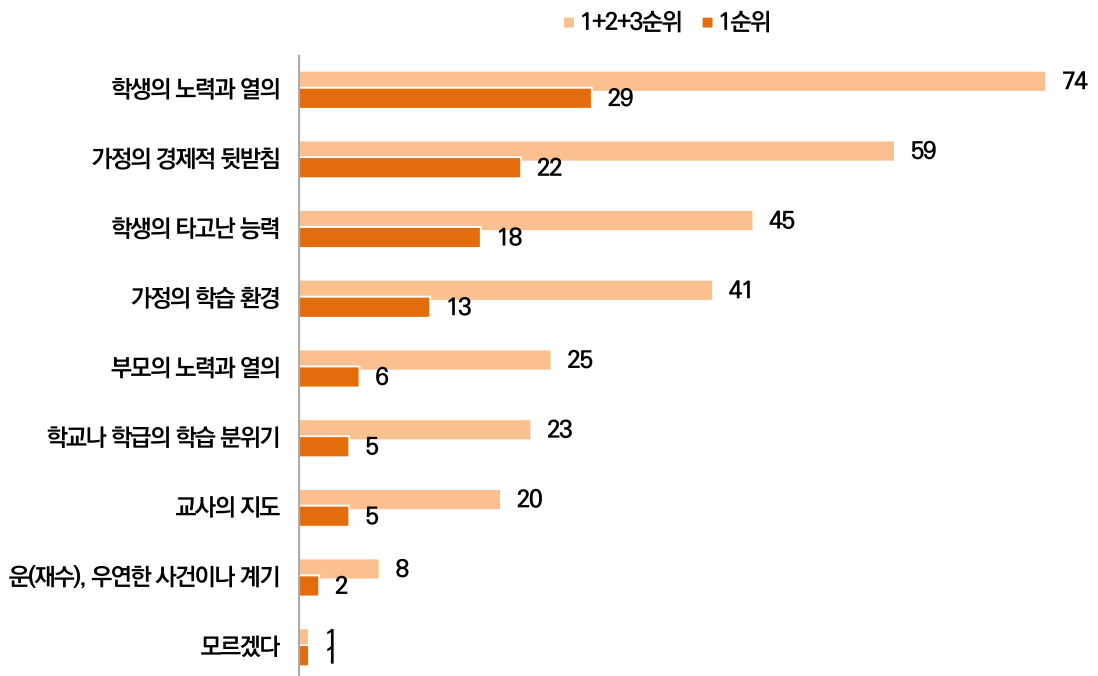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 학생의 노력과 열의,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학생의 타고난 능력 순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노력과 열의' 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74%, 1+2+3순위 기준),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이라는 응답이 59%로 뒤를 이었다. 학생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3%)', '교사의 지도(20%)'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 학생의 노력과 열의,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학생의 타고난 능력 순

(단위 : %)



질문: 다음 중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큰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10.28 ~ 10.31

4

학력이 삶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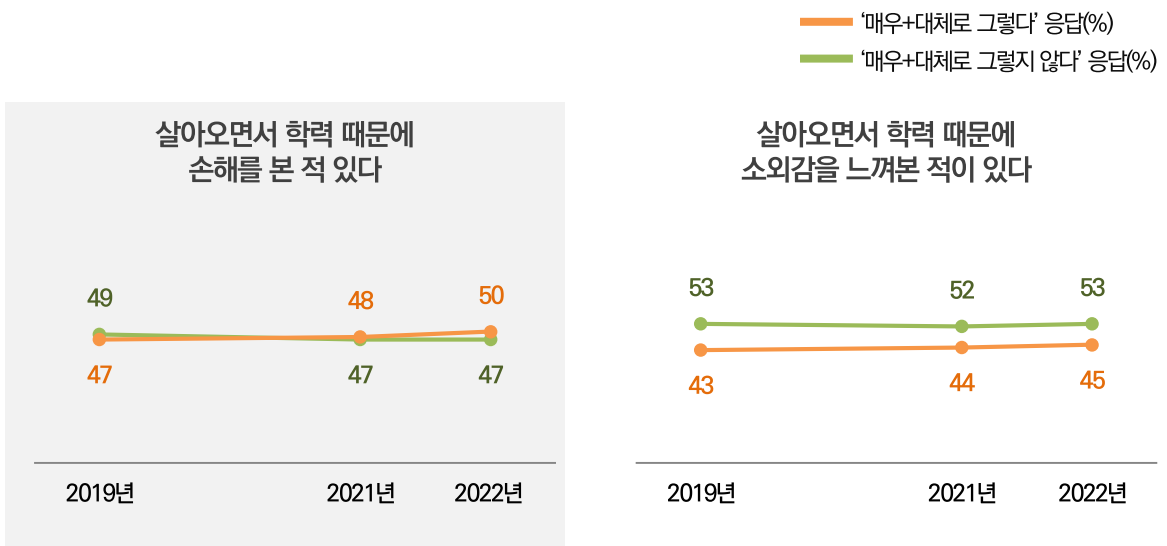
살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 본 적 있다 50%, 소외감 느껴본 적 있다 45%
학력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 경험했다는 응답은 3년 전보다 감소
‘학력은 능력의 척도’, 40%가 동의

전체 응답자의 50%가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3년 전**인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특히 고졸 이하(58%)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대학 재학 이상 39%). ‘살아오면서 학력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였고,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 응답자(52%)가 대학 재학 이상 응답자(36%)에 비해 더 높았다.

‘나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데에는 42%가 동의했다. **1년 전**과는 동일한 결과이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였는데, 1년 전보다는 1%포인트, 3년 전보다는 8%포인트 감소하였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이다’라는 진술에는 40%가 동의하였다. ‘학력은 능력의 척도’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2019년 이후 꾸준히 4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학력은 인격의 척도이다’라는 진술에는 13%만이 동의했다. ‘학력은 인격의 척도’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2019년 이후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살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 본 적 있다 50%, 소외감 느껴본 적 있다 45%



질문: 다음의 문항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 8. 9 ~ 8. 12 // 2021. 10.29 ~ 11.01 // 2022. 10.28 ~ 10.31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9월 기준 약 7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028명, 조사참여 1,30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4.2%, 참여대비 76.4%)
조사일시	• 2022년 10월 28일 ~ 10월 3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